

서두름 행동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 파악: 서두름 행동, 확인생략행동, 성취욕구 간의 관계 이해*

이 순 철[†] 박 선 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서두름 행동은 행동의 속도를 높여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의 속도를 높이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서두름 행동은 전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성취동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의지는 어떤 행동을 생략함으로써 오류행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서두름 행동의 심리적 구조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191명을 대상으로 서두름 행동 질문지와 성취동기척도, 성격 5요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가 많은 응답자를 제외한 18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두름 행동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서두름 행동은 불편함, 시간압력, 고립, 지루함, 보상기대라는 5개의 상황 요인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5요인들의 상관분석 및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두름 행동은 크게 속도를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확인생략행동'과 자신의 과업을 잘하려고 하는 '성취욕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5요인 가운데 시간압력이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욕구'에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서두름 행동의 2개 영역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인생략행동'은 성격 5요인의 신경증과 정적 상관이 있는데 반해,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성취욕구'는 성격 5요인의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어 : 서두름 행동, 시간압력, 확인생략행동, 성취욕구

* 본 논문은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위탁시행 한 2005년도 건설기반구축사업(05 기반구축 D02)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이순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E-mail : snychul@chungbuk.ac.kr

과거 우리 조상들의 걸음걸이를 묘사하는 ‘양반걸음’이란 다리를 크게 떼어 느릿느릿 걷는 걸음으로 그들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걷다가 옷자락이 다 젖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느낌의 미학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외국인이 한국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이다. 실제로 한국의 학원가를 둘러보면 ‘최단기 완성’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국은 “빨리빨리”의 속도를 근간으로 단기간에 세계 최고 IT 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전자가 느긋하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라면, 후자는 어떤 일을 빨리 끝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서로 다른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속도가 중요시 되는 시대에 무언가를 짧은 시간 안에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큰 경쟁력을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빨리 끝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서두른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두름 행동이란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서두르는 경우 평소보다 행동의 속도는 증가한다.

그렇다면 서두름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서두름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조급함과 당황이라는 심리상태이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작업 중 실수를 유발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서두름 행동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이순철(2001)은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거나 재촉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조급함과 당황스러움이 발생하여 “「서

두름→조급함→당황」이 재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이루게 된다”며 서두름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암시한 바 있다. 「서두름→조급함→당황→재해발생」에 대한 일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운전자는 조급한 마음에 주행속도를 높이거나 차선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켜는 동작을 깜박할 수 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당황이라는 마음상태가 생기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서둘러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행동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서두름 행동은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치거나 점검사항을 놓치게 만들고,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서두름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서두름 행동을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서두름 행동에서 이야기 하는 서두름은 ‘서두르다’의 명사형이다. 김광해(2000)가 펴낸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을 살펴보면, ‘서두르다’와 유사한 단어로 ‘덤비다’가 나온다. ‘덤비다’는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두름 행동에 대한 시각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서두름 행동을 사람들이 가지는 적극성이나 목적의식, 목표달성의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가 서두름 행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바텔 연구소 최고경영자인 칼 코트 박사는 2007년 한국 방문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연구개발(R&D)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한국은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데 ‘빨리빨리’

의 스피드가 있다”며, 서두름 행동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속도 경쟁의 승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실험하고 당장 답을 찾아내려는 한국 연구원들 성향이 언급되고 있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6).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성향을 볼 수 있는 서두름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 불행한 경우, 서두름 행동은 재해발생으로 이어지지만, 반대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성과로 연결되거나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기도 한다. 이것은 서두름 행동에 단순히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속도 증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순철과 박선진(2007)은 서두름 행동이 어떤 상황에 발생하는지 조사하여 상황과 연계된 서두름 행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두름이 크게 5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며, 각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순철 등(2007)은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선, 서두름 행동을 보이는 상황 가운데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 및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은 조급한 심리상태와 연결되어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간적 압력이 있는 경우에도 서두름 행동이 발생하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도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시간압력으로 인한 긴장감이 각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서두름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면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기대를 가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은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성취수준이나 작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서두름 행동의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서두름 행동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두름 행동은 행동의 속도를 높여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의 속도를 높이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서두름 행동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살펴보면, 서두름 행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순히 행동의 속도를 높이는 데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이다. 이러한 서두름 행동은 확인행동이나 과정의 생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순철(2001)이 언급한 서두름 행동과 유사하다. 다른 하나는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서두름 행동이다. 이런 종류의 서두름 행동은 자신의 목적을 가능한 빨리 달성하려는 의지와 연결된다. 서두름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의지는 수행에 대한 동기를 촉발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서두름 행동은 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로 이어질 것이다.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패턴

서두름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서두름 행동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다행히 심리학적 개념 가운데 하나인 ‘A형 행동패턴’이 서두름 행동과 관련있는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A형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성취 지

향적이고 경쟁과 승부에 집착하고 지속적인 긴장상태에 있다. 그리고 공격적이며 적개심이 많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특징을 보인다(Friedman과 Rosenman, 1974; 이인혜, 1994에서 재인용).

A형 행동패턴의 특성에 대해 Galss(1977)와 Matthews(1982)도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A형 행동패턴의 중심특성을 “일을 할 때 그것을 도전적인 과제로 받아들여 경쟁적으로 성취를 추구하고,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느린 것에 대한 인내심 부족, 일에 대한 몰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성과 적대감”을 들고 있다(조선미, 이형초, 박현진, 서지영과 홍성묵, 1995에서 재인용). A형 행동패턴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A형 행동패턴의 특성이 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학자들은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A형 행동패턴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고, 이들의 이러한 성격이 작업수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심장질환에 대한 A형 행동패턴의 관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거나(Booth-Kewley & Friedman, 1987; Friedman & Booth-Kewley, 1988), 심한 경우 A형 행동패턴은 심장질환에 대한 예언인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tgews, 1988). 뿐만 아니라 A형 행동패턴과 수행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도 일관되지 않았다. Lee, Earley와 Hanson(1988)은 A형 행동유형과 수행의 질(performance quality)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데 반해, Jamal(1985)은 A형 행동패턴이 수행의 양(quantitative performance)과는 관련이 없지만, 수행의 질(qualitative performance)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A형 행동패턴이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음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위협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Matthews, 1982; Wright, 1988; Bluen & Barling, 1990에서 재인용), A형 행동패턴이 가지는 예언의 질을 높이고자 A형 행동패턴의 구성요인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급함 혹은 조급성이 A형 행동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확인었고, 현재는 A형 행동패턴을 2가지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Pamer, Langeluddecke, Jones & Tennant, 1992; 조선미 등, 1995에서 재인용).

실제로 Bluen과 Barling(1990)은 A형 행동패턴을 성급함(Impatience-Irritability)과 성취추구(Achievement Striving)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성급함과 성취추구 수준에 따라서 영업실적, 직업만족도 및 우울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성취추구는 영업실적 및 직업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취추구 수준이 높은 사원들의 보험 상품 판매량 및 직업만족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성급함은 우울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성급함 수준이 높은 사원들은 우울 수준이 높고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형 행동패턴의 특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 가운데, Barling와 Charbonneau(1992)도 A형 행동패턴의 특성이 건강 및 수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급함은 건강과, 성취추구는 수행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성급함은 건강 가운데 두통과 수면습관을 예언하고 있었으며, 성취추구는 학업성적, 주의 및 집중력과 같은 수행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형 행동패턴의 중심특성 가운데 지속적인

긴장감과 공격적이고 적개심이 많으며 조급함을 느끼는 특성이 성급함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유발한다. 이것은 이순철(2001)이 언급한 서두름 행동과 관련한 심리상태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재해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성취추구로 나타나는 특성은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유사하다. 이 경우, A형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결과처럼 개인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름 행동과 성격 5요인

성격이란 “감정, 사고, 행동의 일관된 패턴들을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의 특징들”을 의미한다(Pervin & John, 1997; 홍숙기, 2007에서 재인용). 최근 성격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Hough & Schneider, 1996), 성격 5요인의 구성요소는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Openness to Experience),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다.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 환경에 대한 민감성, 불안감, 피로감, 긴장의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이며,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이다. 호감성은 외향성과 함께 대인관계적인 양상과 관련 있는 차원으로,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끝으로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격의 5요인은 단지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과업수행과 같은 수행을 예언할 수도 있다. Hogan, Hogan과 Roberts(1996)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잘 구성된 성격검사는 직무수행에 대한 타당한 예언인(predictor)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격과 직무수행간의 관계를 다룬 117개의 연구결과를 통합 분석한 Barrick과 Mount(1991)의 연구결과에서도 성격의 5요인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dwell과 Burger(1998)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취업면접에서의 성공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외향성과 성실성이 취업면접에서의 성공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성실성과 개방성은 평점평균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유태용과 민병모(2001)가 성격의 5요인과 수행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연구결과들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을 수행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지목하였다. 신경증은 수행준거의 종류와 연구장면에 관계없이 수행과 부적 상관을 보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향성과 성실성은 수행준거의 종류와 연구장면에 관계없이 수행과 정적 상관이 있어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수행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영과 유태용(2002)은 성격의 5요인과 조직장면에서의 맥락수행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이 과업수행보다는 맥락수행과 더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격의 5요인은 맥락수행 요인 및 과업수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성격 5요인은 과업수행보다 맥락수행 요인들과 더 높

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실성과 외향성이 맥락수행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두름 행동 가운데 단순히 행동의 속도를 높이는 서두름 행동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서두름 행동을 하는 경우, 사람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행동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 정확하고 철저한 점검을 건널 뿔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의욕이 높고 성취를 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지는 서두름 행동은 신경증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목표달성과 관련한 서두름 행동은 외향성 및 성실성과 같이 수행과 정적으로 관련한 요인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서두름 행동의 특성

확인생략행동과 서두름 행동

이순철(2001)은 일본 전력회사 작업자들의 “아찔한 경험”들을 토대로 한 연구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검전 행동의 생략이지만 여기에는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 심리적 요인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작업을 평소보다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자 할 때, 빨리 하려고 마음을 줄이면서 작업을 서두르는 경우, 빨리 하려고 황급하게 처리하는 경우, 빨리 마치거나 빨리 도착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경우에 서두름 행동의 심리상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서두름 행동은 누구에게나 있는 특성이지만, 사람들이 서두르는 정도는 그 사람이 처

한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순철(2001)의 연구를 통해 시간압력이 서두름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은 빨라진다. 즉, 시간적 압력이 사람들의 심리상태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적 압력이나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Edland와 Svenson(1993)에 의하면, 사람들은 시간압력 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부의 입력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정보 원천이 더 큰 비중을 갖게 되며, 정확도가 감소하고, 복잡한 심적 계산 능력이 저하되며, 한 가지의 방략에만 집착한다.

마찬가지로 시간 압력이 있는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과제나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Raby & Wickens, 1994; Chao, Madhavan, & Funk, 1996). Wallace, Anderson과 Shneiderman(1987; 최원범과 이재식, 2004에서 재인용)은 실험을 통해 시간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수행 속도를 느리게 하고 에러도 증가시킴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의 주의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의 변화, 서두름 행동의 출현으로 인해 어떤 과정이나 행동이 생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야의 과속운전에서 어둠이 주는 불안,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심리가 과속을 조장하는지도 모르며, 위험

이 있음직한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과속의 직접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되고 있다(이순철, 2000; 최상진, 박정열, 김정인과 손영미, 2003; 박영신, 2003). 이것은 불안하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을 가능한 빨리 마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는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것은 서두름 행동의 일면에 ‘탈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즉 서두름 행동이 출현하는 것이다.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하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거나 무시하기 쉽게 만든다.

실제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993; 이순철, 2000에서 재인용)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관련 조사에서 84.7%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시 단속될까봐 매우 조바심 내며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상태는 음주운전 상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과속운전을 해서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여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음주운전 상태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운전자들은 서두르게 되는 것이다. 서두름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과속운전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며, 음주운전과 함께하는 과속운전이 가지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은 다른 어떤 운전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야간이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해지며, 이러한 심리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행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생략하는데서 발생하게 된다.

성취욕구와 서두름 행동

앞에서 시간적 압력이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수행은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일까? 과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정해진 시간 또는 마감시간과 같은 시간적 압력이 사람들의 적절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Dror, Busemeyer와 Bosola(1999)에 의하면 시간적 압력이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범 등(2004)은 시간 압력이 있는 경우, 시간 압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과제를 완료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빨랐으며, 에러율에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속도유지 변산성 및 목표속도이탈 정도를 분석하여, 시간 압력이 없는 조건에 비해 시간 압력이 있는 조건에서 운전자의 수행이 더 우수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런 연구들이 시간적 압력이라는 요인이 항상 인간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 압력은 서두름 행동을 유발하지만, 언제나 그 결과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A형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A형 행동패턴의 성취추구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과 유사하다. 여기서 서두름 행동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에서 비

못되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두름 행동은 일에 몰두하고 의욕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성취욕구라 할 수 있다.

리더십 연구에서 성취욕구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한가지로, 리더가 가진 어떤 특성들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몇 가지 특성들이 리더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Kirkpatrick & Locke, 1991; Muchinsky, 2003에서 재인용).

성취욕구는 리더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McClelland와 Boyatzis(1982; Muchinsky, 2003에서 재인용)는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싶어하며,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일을 선호하고,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취욕구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보면, 성취욕구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성취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과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성취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선호하며,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도 있다.

마라톤 동호인을 대상으로 외적보상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정서원과 박진성(2007)의 연구는 보상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보상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록달성 목표가 높을수록, 흥미가 많아지고, 유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체중조절에 대한 보상은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상과 내적동기를 여러 가지

로 조사하여, 보상이 내적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과 성취욕구의 관계를 예상하면, 성취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은 보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높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두름 행동의 구조를 파악하고, 성격 5요인과 서두름 행동의 관계를 통해 서두름 행동이 가지는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 및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은 조급한 심리상태와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서두름 행동은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면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속성을 가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은 성취수준이나 작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성격 5요인 가운데 각각 외향성, 성실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서두름 행동 질문지, 성취동기 척도, 성격 5요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결측치가 많은 3명의 자료

를 제외한 18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88명의 평균연령은 21세($SD=2.5$)였고, 남성은 67명, 여성은 121명이었다.

조사도구

서두름 행동 질문지

응답자의 서두름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두름 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서두름 행동 질문지는 27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서두름 행동의 정도를 묻고 있다. 응답자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부터 ‘매우 서두른다’까지 반응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점부터 5점으로 채점하였다.

성취동기 척도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창열(1986)이 제작한 성취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95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5점 리커트 양식으로, 응답자들은 21개 문항에 대해 각각 ‘절대 반대한다’부터, ‘절대 찬성한다’까지 반응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각각 1점부터 5점으로 채점하였다.

성격 5요인 검사(NEO-PI-R)

개인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NEO-PI-R(Costa & McCrae, 1992)를 민병모, 이경임과 정재창(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격 5요인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의 5개 요인을 측정하는 2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아주 그렇다(5점)’

로 평정하였다.

결 과

서두름 행동의 심리적 구조

서두름 행동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서두름 행동을 경험하는 27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추출방법과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27개 문항 가운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3이하로 낮은 4개 문항이 요인구성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요인구성에서 제외된 문항은 혼자서 일할 때, 애인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경우, 식당에서 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였다.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23개 문항은 서두름 행동이 총 5개 요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표 1). 그리고 서두름 행동을 경험하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7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으며,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23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인은 내키지 않은 친구와 만나는 경우,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싫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을 때,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할 때 등이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여겨 이 요인의 이름을 「불편함」이라 명하였으며, 19.22%의 설명력을 가졌다.

2 요인은 한꺼번에 해야하는 과제의 양이

표 1. 서두름 행동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Factor loading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3	내키지 않은 친구와 만나는 경우	.936				
2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872				
4	싫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867				
1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을 때	.633				
6	소개팅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497				
5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할 때	.455				
12	한꺼번에 해야하는 과제의 양이 많을 때		.908			
13	처리해야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러개 생긴 경우		.871			
11	하루에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때		.818			
14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많을 때		.783			
15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		.567			
16	시간을 다투는 비상상태에서 일하는 경우		.522			
7	혼자 밤길을 걸을 때			-0.766		
10	낯선 곳에 혼자 있을 때			-0.709		
8	한적한 곳에서 혼자 걸을 때			-0.693		
9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 때			-0.672		
24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할 때				.933	
23	지금 하는 일이 귀찮은 일인 경우				.774	
25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할 때				.574	
26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443	
19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0.999
18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때					-0.920
20	백화점 세일기간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우					-0.719
	고유치	5.19	3.15	2.20	1.88	1.56
	설명 변량(%)	19.22	11.68	8.14	6.96	5.57
	신뢰도 Cronbach's α	.86	.88	.81	.77	.91

많을 때,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러 개 생긴 경우, 하루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 때, 하고 있는 일이 많을 때 등 이었다. 이것은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2요인의 이름을 「시간압력」으로 정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1.68%를 설명하고 있었다.

3 요인은 혼자 밤길을 걷거나 낯선 곳에 있을 때, 한적한 곳에서 혼자 걷거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올 때처럼 고립감이나 고립으로 인한 공포심과 관련 있는 문항으로 8.1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인명은 「고립」으로 정하였다.

4 요인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할 때, 지금 하는 일이 귀찮은 경우,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할 때,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지루한 기분을 경험하는 문항으로 해석하여 요인명을 「지루함」으로 명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변량의 6.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인은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 때 등과 같이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요인명은 「보상기대」로 명하였으며, 5 요인은 전체변량의 5.57%를 설명하였다.

서두름 행동 구성요인 간 관계

상관분석을 통해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압력」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나머지 4개 요인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불편함 $r=.15$, 고립 $r=.16$, 지루함 $r=.18$, 보상기대 $r=.29$). 한편,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은 「시간압력」외에,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r=.24$).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시간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과 관련이 있을 뿐($r=.18$), 다른 요인들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보상기대」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편함 $r=.29$, 시간압력 $r=.25$, 고립 $r=.33$).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하거나 일정이 빠듯한 것처럼 시간적 압박이 존재하

표 2. 서두름 행동 요인 간 상관분석

	불편함	시간압력	고립	지루함	보상기대
불편함	1				
시간압력	.15*	1			
고립	.24**	.16*	1		
지루함	.11	.18*	-.004	1	
보상기대	.29***	.25***	.33***	.02	1

* $p < .05$, ** $p < .01$, *** $p < .001$

는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압력」이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두름 행동의 기저에 「시간압력」이 존재하며, 이것이 다른 요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의 관계

앞에서 서두름 행동의 특성으로 자신의 목적을 가능한 빨리 달성하려는 의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런 점을 살펴보기 위해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성취동기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r=.14, p=.06$).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관분석을 통해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과 성취동기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불편함」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는 부적 상관을 보여 「불편함」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성취동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15$). 그러나 시간적 압력이 있는 상황의 서두름 행동을 나타내는 「시간압력」과 「지루함」 및 「보상기대」에 대한 서두름 행동은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간압력 $r=.30$, 지루함 $r=.17$, 보상기대 $r=.16$).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각 요인과 성취동기가 가지는 관계는 각 요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의 관계는 「불편함」을 경험하는 상황과 「고립」된 경우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과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과 「보상기대」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두름 행동 2개 영역과 성격 5요인의 관계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 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서두름 행동의 요인 가운데 「시간압력」이 서두름 행동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과 「고립」된 경우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이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과 「보상기대」인 경우 보이는 서두름 행동과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서두름 행동의 개념을 고려하면, 「불편함」과 「고립」된 경우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급함이나 정서적 불안정과 관련이 있고, 「지루함」과 「보상기대」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은 목표달성과 관련한 것으로, 서두름 행동이 2개의 큰 영역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서두름 행동의 2개 영역 모두 「시간압력」을 기본으로 「불편함」과 「고립」으로 첫 번째 영역을, 「지루함」과 「보상기대」로 두 번째

표 3.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 상관분석

	서두름 평균점수	불편함	시간압력	고립	지루함	보상기대
성취동기	.14($p=.06$)	-.15*	.30***	-.05	.17*	.16*

* $p<.05$, ** $p<.01$, *** $p<.001$

표 4. 서두름 행동 2개 영역과 성격 5요인 상관분석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확인행동생략	.39***	-.01	-.03	-.05	-.15*
성취욕구	.09	.24**	.11	.08	.12

** $p < .01$, *** $p < .001$

째 영역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의 경우, 단순히 행동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상태로 인해 무언가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확인생략행동』으로 명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이며 앞서 성취동기와 정적 관계를 보였기에 『성취욕구』로 지칭하였다.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서두름 행동의 2개 영역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인생략행동』은 성격 5요인의 신경증과 정적관계를 가져,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39$). 그리고 『확인생략행동』은 성실성과 부적 관계를 보여 이 영역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성실성이 낮아 산만하고 부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15$). 한편, 『성취욕구』는 성격 5요인의 외향성과 정적 관계를 가져($r = .24$),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표 4).

‘확인생략행동’과 신경증 및 성실성 하위요소의 관계

서두름 행동의 2개 영역 가운데 ‘확인생략행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 및 성실성과 관련이 있었다. ‘확인생략행동’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확인생략행동’과 신경증, 성실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확인생략행동’과 신경증 하위 요소의 관계

‘확인생략행동’ 영역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과 신경증을 구성하는 6개 하위요소의 관계를 살펴보니, ‘확인생략행동’은 신경증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소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불안 $r = .41$, 적대감 $r = .19$, 우울 $r = .19$, 자의식 $r = .42$, 충동성 $r = .31$, 취약성 $r = .28$ (표 5)). ‘확인생략행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과민한 정도 및 사회적 상황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당혹스러

표 5. ‘확인생략행동’과 신경증 하위요소 상관분석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취약성
확인생략행동	.41***	.19**	.19**	.42**	.31*	.2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확인생략행동'과 성실성 하위요소 상관분석

	유능성	질서	의무	성취욕	자제	속고
확인생략행동	-.16*	-.06	-.05	.03	-.21**	-.25**

* $p < .05$, ** $p < .01$, *** $p < .001$

위하는 정도가 심하고 자신의 충동이나 열망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생략행동’과 성실성 하위 요소의 관계

‘확인생략행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관계가 있는 성실성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유능성과 자제, 속고가 ‘확인생략행동’ 영역에서 경험하는 서두름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유능성 $r = -.16$, 자제 $r = -.21$, 속고 $r = -.25$) (표 6). 유능성은 능력, 감각, 신중성 및 효율성이 있는 정도를 반영하며, 자제는 지루하고 산만하더라도 과업을 시작하여 마치는 능력을, 속고는 행동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확인생략행동’ 영역의 서두름 행동과 유능성, 자제 및 속고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인생략행동’ 영역의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으며, 지루하고 산만한 과업을 쉽게 그만두고, 상대적으로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취욕구’와 외향성 하위요소 상관분석

	따뜻함	집단성향	자기주장성	활동성	흥분추구	긍정적 정서
성취욕구	.19**	.15*	.18*	.15*	.19*	.28***

* $p < .05$, ** $p < .01$, *** $p < .001$

‘성취욕구’와 외향성 및 성실성 하위요소의 관계

서두름 행동의 2개 영역 가운데 ‘성취욕구’ 영역에서 보이는 서두름은 성격 5요인의 외향성과 관련이 있었다. ‘성취욕구’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성취욕구’가 외향성의 하위요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취욕구’와 외향성 하위 요소의 관계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성취욕구’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은 외향성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소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뜻함 $r = .19$, 집단성향 $r = .15$, 자기주장성 $r = .18$, 활동성 $r = .15$, 흥분추구 $r = .19$, 긍정적 정서 $r = .28$). 즉, ‘성취욕구’ 영역의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사교적일 뿐만 아니라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잘하며, 흥분과 자극을 좋아하고 명랑하고 힘이 넘치고 낙관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취욕구'와 성실성 하위요소 상관분석

	유능성	질서	의무	성취욕	자제	속고
성취욕구	.06	.08	.09	.30***	.004	.04

*** $p < .001$

‘성취욕구’와 성실성 하위 요소의 관계

‘성취욕구’ 영역과 성실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두름 행동과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성취동기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소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성취욕구’를 구성하는 「시간압력」, 「지루함」, 그리고 「보상기대」에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성취욕구’의 서두름 행동과 성실성의 하위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취욕구’의 서두름 행동과 성실성의 하위요소 가운데 성취욕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r = .30$). 즉 ‘성취욕구’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논 의

과거 서두름 행동은 단순히 어떤 일을 빨리 끝내고자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두름 행동을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눈으로 관찰되는 서두름 행동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두름 행동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서두름 행동과 목표달성에 대한 욕구에서 기인하는 서두름 행동으로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한편, 서두름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서두름 행동의 성격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 서두름 행동 요인과 성취동기의 상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서두름 행동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서두름 행동이 5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두름 행동이 크게 ‘확인생략행동’과 ‘성취욕구’라는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영역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동의 특성은 차이가 있었지만, 이 두 영역 모두 시간적 압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두름 행동의 두 영역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통해서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서두름 행동의 ‘확인생략행동’ 영역은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과 정적 상관이 있고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확인생략행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높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긴장이나 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걱정을 많이 하는 동시에 산만하고 부주의하며 행동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야심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두름 행동의 ‘성취욕구’ 영역은 외향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취욕구’ 영역에서 보이는 서두름 행

동의 수준이 높으면 사교적이며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잘하며 흥분과 자극을 좋아하고 명랑하고 힘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의 5요인과 수행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연구의 분석을 통해 외향성 요인이 성실성 요인을 제치고 수행준거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보고한 유태용 등(2001)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은 이 결과에 대해 잠정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상사와 같은 주관적 준거에서 보다 높게 평가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성취욕구' 영역의 서두름 행동이 성실성이 아닌 외향성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것에 대해 외향성이 사회적 성공과 관련있다는 점을 근거로 '성취욕구' 영역의 서두름 행동 수준이 높은 이들의 성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성취욕구' 영역의 서두름 행동이 성실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실성의 하위요소 가운데 성취욕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영역에서의 서두름 행동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취욕구' 영역의 서두름 행동이 성실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는 '성취욕구' 영역을 구성하는 서두름 행동 구성요인 간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서두름 행동의 개념과 평가를 재구성함으로써 서두름 행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습관을 통해 서두름 행동을 파악하지

않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서두름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빨리빨리' 라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조급성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조선미 등(1995)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들은 조급성을 정서, 인지, 행동 영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들이 다른 조급성의 경우 '성취추구'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급성은 부정적인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다른 서두름 행동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즉,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빨리빨리'의 긍정적인 부분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서두르는 현상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행동은 대부분 실수나 사고로 연결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침착하고 꼼꼼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서두름 행동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과업을 달성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한국인의 서두름 행동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서두름 행동의 긍정적인 부분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두름 행동의 양가적 특성은 한국인에게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서두름 행동에 대한 관심과 서두름 행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계기로 서두름 행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추후, 서두름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의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두름 행동과 운전습관의 관계를

통해 서두름 행동이 안전운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가 있다면 서두름 행동의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두름 행동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6).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 서울:한스미디어.
- 김광해 (2000). 비슷할말 반대말 사전. 낱말.
- 김도영, 유태용 (2002). 성격의 5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15(2), 1-24.
-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NEO 인성검사 (NEO PI-R). PSI컨설팅.
- 박영신 (2003).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9(특집호), 89-106.
- 유창열 (1986). 성취동기 측정척도 개발.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8(3), 10-16.
- 유태용, 민병모 (2001).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을 예측하기 위한 5요인 성격모델의 사용가능성과 한계: 국내 연구결과와의 통합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14(2), 115-134.
- 이순철 (2000). 교통심리학. 학지사.
- 이순철 (2001). 산업재해와 오류행동. 사회과학연구, 18(2), 231-250,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순철, 박선진 (2007). 서두름의 심리적 구조.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512-513.
- 이인혜 (1994). 성격특성, 백색소음에 대한 심장혈관계 반응성 그리고 A형 행동패턴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37-53.
- 정서원, 박진성 (2007). 마라톤 동호인의 운동수준 및 보상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2), 59-73.
- 조선미, 이형초, 박현진, 서지영, 홍성묵 (1995). '빨리 빨리 빨리': 조급성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임상심리학회 95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5-216.
- 최상진, 박정열, 김정인, 손영미 (2003). 한국사회의 교통문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특집호), 15-34.
- 최원범, 이재식 (2004). 운전자와 자동차 항법시스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간압력과 시스템 메뉴구조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17(1), 1-17.
- 홍숙기 (2007). 성격심리(상). 박영사.
- Barling, J. & Charbonneau, D. (1992).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hievement Striving and Impatience-Irritability Dimensions of Type A Behavior, Performance and Healt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4), 369-377.

-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 1-26.
- Bluen, S. D. & Barling, J. (1990). Predicting Scale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y Using the Achievement Strivings and Impatience-Irritability Dimensions of Type A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2), 212-216.
- Booth-Kewley, S. & Friedman, H. S. (1987). Psychological predictors of heart disease: A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1*, 343-362.
- Caldwell, D. F. & Burger, J. M. (199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job applicants and success in screening interviews. *Personnel Psychology, 51*, 119-136.
- Chao, C. D., Madhavan, D., & Funk, K. (1996). Studies of cockpit task management err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Psychology, 6*, 307-320.
- Dror, I. E. Busemeyer, J. R. & Bosola, B. (1999). Decision making under time pressure: An independent test of sequential sampling models, *Memory and Cognition, 27*(4), 713-725.
- Edland, A. & Svenson, O. (1993).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under time pressure: Studies and findings. In O. Svenson and A. J. Maule(eds.), *Time pressure and stress on human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pp. 27-40). New York: Plenum Press.
- Friedman, H. S. & Booth-Kewley, S. (1988). Validity of the Type A construct: A reprise. *Psychological Bulletin, 104*, 381-384.
- Hogan, R., Hogan, J., & Roberts, B. W. (1996). Personality measurement and employment decisions. *American Psychologist, 51*, 469-477.
- Hough, L. M. & Schneider, R. J. (1996). Personality traits, taxonomies, and applications in organizations. In K. R. Murphy(Ed), *Individual differenc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pp. 31-88). San Francisco: Jossey-Bass.
- Jamal, M. (1985). Type A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Some suggestive findings. *Journal of Human Stress, 11*, 60-68.
- Lee, C., Earley, P. C., & Hanson, L. A. (1988). Are Type A better perform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 263-269.
- Matthews, K. A. (1998). Coronary heart disease and Type A behaviors: Update on an alternative to the Booth-Kewley and Friedman(1987)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4*, 373-380.
- Muchinsky, P. M. (2003). 산업 및 조직심리학. [*Psychology Applied to Work*]. (유태용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0년에 출판)
- Raby, M. & Wickens, C. D. (1994). Strategic workload management and decision biases in av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Psychology, 4*, 211-240.
- 투 고 일 : 2008. 03. 10.
1 차심사일 : 2008. 04. 21.
게재확정일 : 2008. 05. 21.

The Psychologic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Hasteful Behaviors: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Hasteful Behaviors, Omission of Checking and Achievement Striving

Soon Chul Lee

Sun Jin Park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steful behavior means choosing the best suited methods while behaving fast and quickly. We can't conclude whether hasteful behavior is totally bad or good. Striving for achievement of own certain purpose reflects achievement motivation or need for achievement. However, this striving also has potentiality of missing confirmation, therefore the potentiality may cause erro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the hasteful behavior. One hundred ninety-one students conducted Hasteful Behavior Questionnaire, Achievement Motivation Measuring Scale, and NEO Personality Inventory. We analyzed data of 188 respondents, because of missing value.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hasteful behavior consisted of 5 factors- 「Uncomfortableness」, 「Time Pressure」, 「Isolation」, 「Boring Condition」, and 「Expecting Rewards」. According to correlations among the hasteful behavior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asteful behavior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 found that hasteful behavior had two aspects, one was "Missing Confirmation(MC)" and the other was "Need for Achievement(NA)". We also found that 「Time Pressure」 was related to the both aspects. MC had a positive relation to Neuroticism, whereas MC correlated negatively with Conscientiousness. On the other hand, NA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xtraversion and Achievement Striving.

Key words : Hasteful Behaviors, Time Pressure, Missing Confirmation, Need for Achievement